

# ‘셔틀콕 여제’ 안세영, 프랑스오픈서 시즌 9번째 우승 도전

프랑스오픈, 현지 시간 21일~26일 진행... 안세영, 덴마크오픈 이어 연속 우승 도전

‘셔틀콕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두 대회 연속 우승이자 시즌 9번째 정상에 도전한다.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현지 시간으로 21일부터 26일까지 옛세간 프랑스 세송 세비네에서 열린 2025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슈퍼 750 프랑스오픈 여자단식에 참가한다.

32강에서 마주할 이번 대회 첫 상대는 세계 46위 안틀 카르(인도)다.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은 지난 19일 덴마크 오픈에서 열린 세계 2위 왕즈이(중국)와의 덴마크오픈(슈퍼 750) 결승에서 2-0(21-5 24-22)으로 승리하고 우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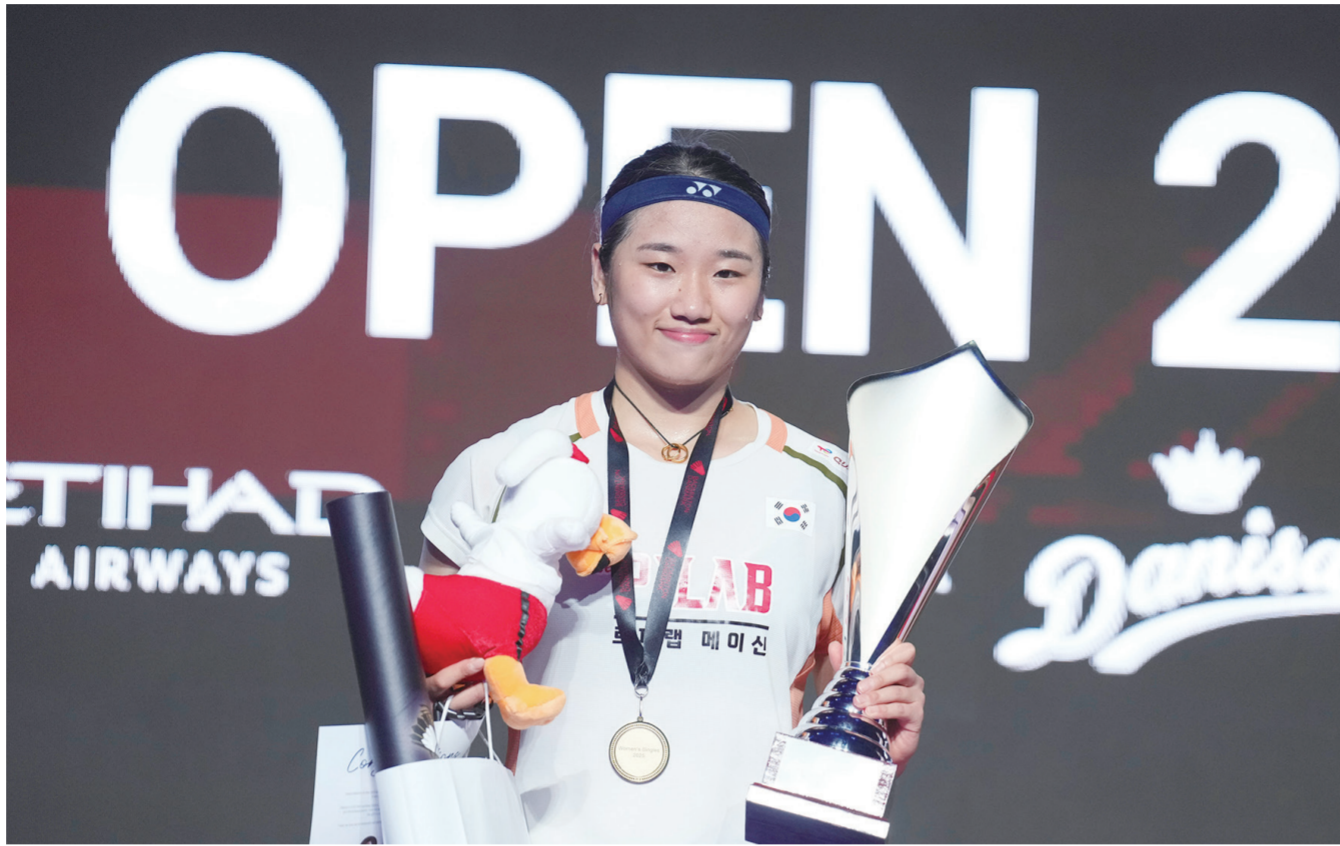
▲말레이시아오픈(슈퍼 1000) ▲인도 오픈(슈퍼 750) ▲오를레앙 마스터스(슈퍼 300) ▲전영오픈(슈퍼 1000) ▲인도네시아오픈(슈퍼 1000) ▲일본오픈(슈퍼 750) ▲중국 마스터스(슈퍼 750)에 이은 올해 8번째 우승이다.

안세영은 이미 세계 최강으로 발돋웠지만, 올해 중간중간 시련을 겪기도 했다.

지난 7월 중국오픈(슈퍼 1000)에선 준결승에서 무릎 부상으로 기권하며 한 시즌 슈퍼 1000 대회 4개를 모두 우승하는 이른바 ‘슈퍼 1000 슬램’을 놓쳤다.

8월 2025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선 2연패에 도전했지만 ‘천적’ 세계 5위 천위페이(중국)에게 밀려 준결승에서 고배를 마셨다.

9월엔 2년 만에 코리아오픈(슈퍼 500)에 출전했으나 올해 세 차례 맞대결에서만 번도 지지 않았던 세계 3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에 잡혀 준우승에 그쳤다. 그런 안세영이 덴마크오픈 우승으로 세 대회에서의 아쉬움을 완벽히 털어냈다. 다가오는 프랑스오픈에선 시즌 9승에 도전, 12월에 있을 HSBC BWF 월드 투어 파이널스 대회를 이어간다. 월드 투어 파이널스는 올해 국제 대회 남자단식, 남자복식, 여자단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5개 종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던 8명(팀)이 격돌하는 ‘왕중왕전’ 격 대회다.

한편 한국 배드민턴 선수단은 안세영을 포함해 총 14명의 선수가 덴마크오픈에 참가한다. 여자단식은 안세영과 김가은(삼성생명), 여자복식은 백하나-이소희(이상 인천국제공항) 조, 김혜정(삼성생명)-공희용(전북은행) 조, 정나은(화순군청)-이연우(삼성생명) 조가 출전한다. 백하나-이소희는 덴마크오픈 결승에서 김혜정-공희용을 2-1(15-21 21-14 21-15)로 격파, 맞대결 4연패를 끊고 올해 첫

우승을 달성했다. 남자복식엔 김원호-서승재(이상 삼성생명) 조, 강민혁(국군체육부대)-기동주(인천국제공항) 조, 혼합복식엔 이종민(삼성생명)-채유정(인천국제공항) 조가 도전장을 내민다. 안세영과 마찬가지로 올해 8승을 기록 중인 김원호-서승재는 직전 덴마크오픈 16강 탈락의 아픔을 뒤로하고 프랑스오픈 정상을 노린다.

/뉴스시스



영암군, LPGA 우승 김세영 선수 할머니에 축하 인사

‘영암의 딸’ 김세영 프로골퍼가 19일 해남 파인비치골프링크스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5언더파 67타를 기록해 우승을 차지했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 만에 우승한 김 선수, 고향 영암이 지척인 해남에서 통산 13번째 LPGA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우승회 영암군은 20일 김 선수의 할머니 우성자 어르신과 살고 있는 신네고 회담을 나눴다. 영암 신복 출신인 김 선수는 가족,

특히 할머니의 헌신적 뒷받침 속에서 골프를 시작해 이어오고 있어 우 어르신을 정신적 지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승회 영암군은 “김세영 선수의 투혼과 도전 정신은 영암군민 모두의 자랑이다. 우승으로 영암의 자부심을 높여줘서 정말 기쁘다”고 인사했다. 영암군은 김 선수의 성취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보고, 다양한 종목의 체육 꿈나무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체육 인재 발굴·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 전남도, 국제농업박람회서 전국 초·중·고 드론 스피드 경진

빠르고 정확한 완주 기록 경쟁... 첨단기술 농업 확장 체험장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2025 국제농업박람회장서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전국 초·중·고 드론 스피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남농업기술원과 국립목포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전남도교육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후원한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부분별 우수 참가자에게는 전남도지사상, 전남도교육감상,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대회는 참가 학생이 직접 드론을 조종해 주어진 코스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완주하는 ‘드론 스피드 레이싱’ 종목으로 진행된다. 경기는 초등·중등·고등부로 나눠 운영되며, 비행 완주 기록을 기준으로

부분별 순위를 결정한다. 특히 대회 현장에는 드론 경기 외에도 다양한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한 ▲드론 조종 체험 ▲드론 시연 비행 ▲농업용 드론 전시 등 부대행사를 통해 학생뿐 아니라 가족 단위 관람객과 농업인도 드론의 원리와 농업·산업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드론은 이미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자,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 가능한 미래 유망 산업”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이 농업과 과학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직접 체험하고,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 순천시, 가을 스포츠 열기 속도심 활기 가득!

파크골프, 산악자전거, 궁도 등 총 1,200여 명 참가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18일과 19일, 지역과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스포츠 도시 순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제2회 순천시장기 파크골프대회, 제12회 순천만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제28회 순천시장기 양정 궁도대회가 순천 곳곳에서 펼쳐지며, 총 1,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치열한 경쟁과 화합의 장을 펼쳤다.

특히 이번 대회들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물론, 참가자

와 가족 방문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명품 가을 날씨 속에 다양한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시민과 선수 모두가 활력 넘치는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과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정성인 기자



지난 19일 서면인형정에서 열린 제28회 순천시장기 양정 궁도대회에서 선수대표가 선서를 하고 있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마법의 국향랜드로 초대합니다

# 국향 HAM PYEONG 대전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10.24.(금) - 11.09.(일)

함평엑스포공원